

체류와 연결의 공공 공간으로서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 의미 연구

A Study on Library-Integrated Complex Cultural Spaces as Public Spaces for Stay and Connection

노 영 희 (Younghee Noh)*

목 차

- | | |
|-----------|--------------------------|
| 1. 서 론 | 4.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의 유형 분석 |
| 2. 이론적 배경 | 5.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의 특성 분석 |
| 3. 연구설계 | 6.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을 시설 복합화가 아닌 체류와 연결을 촉진하는 공공공간 모델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수집한 국내외 사례를 체육·웰니스, 공연·전시, 라키비움, 돌봄·복지, 행정·공공서비스, 어린이 놀이·체험, 광장·오픈스페이스, 상업·생활편의 결합형으로 구분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핵심은 기능의 수보다 도서관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간·서비스·프로그램·지역자원·운영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데 있었다. 주요 특성으로 체류성, 연결성, 공공성, 융합성, 운영 지속가능성이 도출되었다. 이에 향후 조성·운영에서는 시설 중심 접근을 넘어 이용자 경험과 지역사회 연결을 강화하는 통합적 설계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library-integrated complex cultural spaces as public spaces that promote staying and connection rather than merely combining faciliti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collected from September 2025 to February 2026 were qualitatively analyzed across eight types: sports and wellness, performance and exhibition, larchiveum, care and welfare, administrative and public services, children's play and experience, plazas and open spaces, and commercial and convenience facilit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ir value lies not in the number of functions but in the integration of spaces, services, programs, local resources, and operational systems around the library's public mission. Staying, connection, publicness, convergence, and operational sustainability emerged as key characteristics. Future development should therefore emphasize integrated design centered on user experience and community connection.

키워드: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 공공도서관, 체류성, 연결성, 공공성, 지역사회

Library-integrated complex cultural space, Public library, Staying, Connection, Publicness, Local community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논문접수일자: 2026년 7월 21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8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8월 1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3): 77-96,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3.077>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현대 공공도서관은 자료의 수집·보존·대출과 열람 중심의 전통적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학습, 문화 향유, 체류, 관계 형성, 생활서비스 접근을 지원하는 복합적 공공공간으로 전換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환경의 확산으로 정보 접근 기능의 독점성이 약화되는 한편, 사회적 고립과 공동체 약화, 생활권 기반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도서관의 역할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 IFLA & UNESCO(2022)는 공공도서관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지역사회의 지식·문화·정보 접근 기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도서관이 자료 제공기관을 넘어 포용성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인프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서관은 공연장, 전시공간, 체육시설, 돌봄·복지시설, 행정서비스, 생활편의시설 등과 결합하며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복합화의 본질은 여러 기능을 한 공간에 배치하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기능과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의 체류 경험을 강화하고, 사람·정보·문화·지역자원을 연결하며, 도서관 고유의 공공성을 유지·확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은 단순한 시설 복합화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와 이용자 경험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공간 운영 모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장소성과 관계 형성 기능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Audunson(2005)은 공공도서관을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저강도

만남의 장소로 보았으며, Aabø et al.(2010)은 도서관이 광장, 만남, 공동활동의 장으로 기능한다고 분석하였다. Oldenburg(1999)의 제3의 장소와 Klinenberg(2018)의 사회적 기반시설 개념 역시 도서관이 일상적 체류와 사회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공간임을 설명한다. 또한 Bitner(1992)의 서비스스케이프 이론과 Jochumsen et al.(2010)의 공공도서관 네 공간 모델은 도서관 공간이 이용자의 행동, 참여, 만남, 창조 활동을 촉진하는 경험 기반 공간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수집한 국내의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을 단순한 시설 결합이 아니라 체류와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공간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의 등장 배경과 이론적 의미를 검토하고, 둘째, 도서관과 다양한 시설·서비스의 결합 양상을 분석하며, 셋째, 체류성·연결성·공공성의 관점에서 주요 특성을 도출하고, 넷째,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논의를 시설 중심의 사례 소개에서 벗어나 이용자 경험과 지역사회 연결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도서관이 지식정보기관을 넘어 생활권 기반의 공공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한 공간적·운영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2. 이론적 배경

2.1 도서관 역할 변화와 복합문화공간의 접합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인 자료의 수집·조직·보존·제공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학습, 문화 향유, 체류, 관계 형성, 시민참여, 생활서비스 접근을 지원하는 복합적 공공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환경의 확산과 함께 정보격차, 사회적 고립, 지역 공동체 약화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공공도서관은 자료 제공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공공성을 실현하는 생활권 기반 공공 플랫폼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IFLA & UNESCO(2022)가 공공도서관을 교육, 문화, 정보 접근, 포용,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관으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변화와 연결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자료 중심성'에서 '이용자 경험 중심성'으로의 이동이다. 오늘날 도서관 이용은 자료 탐색과 대출뿐 아니라 머무름, 만남, 비공식 학습, 문화 참여, 공동체 활동, 창작과 표현으로 확장되고 있다. Oldenburg(1999)의 제3의 장소론, Audunson(2005)의 저장도 만남의 장소, Aabø et al.(2010)의 광장·공론장·공동활동 공간에 관한 논의는 공공도서관의 가치가 장서와 대출량을 넘어 사람과 정보, 문화적 경험을 연결하는 사회적 공간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의 접합은 이러한 역할 변화가 공간과 서비스로 구체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복합문화공간은 여러 시설을 단순히 병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문화, 여가, 돌봄, 복지, 행정, 커뮤니티 활동을 이용자의 생활 흐름

속에서 통합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공공서비스 모델이다. 따라서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의 핵심은 추가된 시설의 종류가 아니라, 도서관의 공공성·접근성·정보서비스·문화적 장소성이 다양한 생활문화 기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확인된다. 광승진 외(2017)는 도서관이 학습, 휴식, 문화, 창작, 협업을 지원하는 복합 공간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함을 제시하였고, 노영희와 김윤정(2019), 노지윤과 노영희(2019)는 이용자 경험과 만족을 중심으로 복합문화공간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영지와 노영희(2020)는 전담인력, 예산, 프로그램 개발, 지역 수요 반영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권지은 외(2020), 도지강과 이선정(2025), 손다희와 이남규(2025)는 공간디자인과 이용자 행태, 사회적 공간생산의 관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 또한 강은영(2020), 박주현 외(2024), 박진숙과 이원희(2025)는 공공청사, 지역문화서비스, 협업·창작 공간과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종합하면,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은 단순한 시설 복합화가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체류, 연결, 공공성, 지역사회 플랫폼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전략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2.2 선행연구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사회적 장소성, 공간구성과 복합화, 이용자 경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먼저 사회적 장소성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정

보서서비스 기관을 넘어 만남과 관계 형성의 장소로 해석한다. Audunson(2005)은 도서관을 다양한 시민이 접촉하는 저장도 만남의 장소로, Aabø et al.(2010)은 광장·공론장·공동활동의 공간으로 설명하였다. Oldenburg(1999)의 제3의 장소와 Klinenberg(2018)의 사회적 기반시설 개념 역시 도서관이 일상적 체류와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임을 뒷받침한다.

공간구성과 복합화 연구에서는 도서관을 정보, 학습, 창작,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공간으로 파악한다. 광승진 외(2017)는 복합 공간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으며, 도지강과 이선정(2025)은 공공도서관을 사회적 관계와 이용자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석하였다. 이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노영희와 김윤정(2019), 노지윤과 노영희(2019)가 휴식·문화·교육·소통에 대한 이용자 요구와 중요도·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고, 손다희와 이남규(2025)는 개방적 시야, 동선, 좌석배치 등 이용자 행태에 대응하는 공간전략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과 운영 측면에서 신영지와 노영희(2020)는 복합문화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담인력, 예산, 프로그램 기획, 이용자 참여가 함께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역정책 측면에서는 권지은 외(2020)가 지역 문화정책성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운영을, 강은영(2020)은 공공청사와 도서관의 결합을, 박주현 외(2024)는 지역 문화서비스 거점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재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영희와 김동석(2022)은 텍스트마이닝과 감성분석 등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을 분석하였으며, 강지혜 외(2026)는 텍스트 마이닝,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을 통해 공공도서관을 둘러싼 온라인 담론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에 관한 논의를 공간구성, 이용자 경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활성화, 공공서비스,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확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특정 사례나 개별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어, 문화·교육·복지·체육·행정·생활편의 기능이 결합된 다양한 사례를 통합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을 공공도서관 역할 변화의 공간적·사회적 표현으로 보고, '체류와 연결의 공공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체류 경험, 연결성, 프로그램 융합, 운영체계, 공공성의 유지와 확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대상 및 사례 선정 기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수집된 국내외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 사례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은 공공도서관 또는 도서관 기능이 문화·교육·체육·돌봄·복지·행정·상업·광장 등 다양한 생활문화 기능과 결합하여 지역주민의 체류, 학습, 참여, 관계 형성, 생활서비스 접근을 지원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단순히 도

서관과 타 시설이 동일 건물에 함께 위치한 사례가 아니라, 도서관의 공공성, 접근성, 정보·문화서비스 기능이 다른 기능과 결합하여 이용자 경험을 확장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다만 하나의

사례가 복수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에 중복 배치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은 단순 빈도 산출보다 유형별 기능 결합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음 <표 1>은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한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 사례를 국내외 구분 없이 결합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조사대상 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

구분	유형	조사대상 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	주요 결합 기능
국내	체육·웰니스 결합형	가양레포즈센터	실내체육관, 가양도서관 연계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수영장, 전시실, 도서관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초등돌봄센터, 다목적 체육관, 생활문화센터, 수영장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미디어센터, 공연장
		서창어울마당	체육센터,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 안심센터
		신길 문화체육도서관	실내수영장, 개방형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북카페
		아산시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배방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수스포츠허브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복합화시설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목욕탕
		원흥복합문화센터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도서관
해외	체육·웰니스 결합형	템피니스 허브	템피니스 도서관, 축구장, 대형극장, 커뮤니티센터, 푸드센터, 슈퍼마켓, 어린이 놀이터, 보건센터, 건강연구소
국내	공연·전시 결합형	가람도서관	음악당,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클래식 공연장
		관악아트홀·관악중앙도서관	관악아트홀, 관악중앙도서관, 남파김삼준문화복지기념관
		부산도서관	자료실, 모듈극장, 부산관련자료 전시실, 카페테리아, 회의실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미디어센터, 공연장
		조지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공연장, 청소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문화교실, 수영장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수영장, 트레이닝센터, 어린이집, 야외공연장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복합전시관, 어린이도서관, 극장, 문화박물관, 기념관, 야외무대
해외	공연·전시 결합형	53번가 도서관	도서관, Children's Room, Teen Zone, Rooms A&B
		교토아트센터	도서관, 카페, 미팅룸, 워크숍룸, 제작실, 강당, 갤러리, 정보코너
		몽펠리에 중앙 에밀 줄라 도서관	에밀 줄라 도서관, 영화감상실, 비디오게임실, 정보뱅크, 카페 드 레터
		무사시노 플레이스	시립도서관, 평생학습지원센터, 시민활동지원센터, 청소년활동공간
		민나노모리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	시립중앙도서관, 시민활동교류센터, 전시갤러리, 홀
		조르주蓬피두 센터	서점, 도서관, 전시장, 미술관
		카도카와 문화박물관	만화·라이트노벨 도서관, 애니메이션 박물관, 에디트 타운-북 스트리트, 책장극장, 카페, 레스토랑, 기념품숍

구분	유형	조사대상 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	주요 결합 기능
국내		템피니스 허브	템피니스 도서관, 축구장, 대형극장, 커뮤니티센터, 푸드센터, 슈퍼마켓, 어린이 놀이터, 보건센터, 건강연구소
		후쿠오카 시립도서관	후쿠오카 시립도서관, 카페, 전시갤러리, 영화관, 필름 아카이브
	라키비움 결합형	김근태기념도서관	도서관, 전시실, 기록·기념공간, 민주주의·인권 관련 기록문화 콘텐츠
		서울도서관	서울자료실, 서울기록문화관, 책문화 공간, 전시·기록 연계 공간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공공도서관, 지역기록, 역사문화 콘텐츠, 전시·교육 연계 공간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복합전시관, 어린이도서관, 극장, 문화박물관, 기념관, 야외무대
	돌봄·복지 결합형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다목적체육관, 청소년시설, 공동육아나눔터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초등돌봄센터, 다목적 체육관, 생활문화센터, 수영장, 어린이집
		아산시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배방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수스포츠센터
		향남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실내수영장,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수영장, 트레이닝센터, 어린이집, 야외공연장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의 집, 어린이집, 노인문화센터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복합화시설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목욕탕
		서창어울마당	체육센터,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행정·공공서비스 결합형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다목적체육관, 청소년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체육시설, 문화의 집, 어린이집, 노인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체험 결합형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미디어 전시공간, 디지털 체험공간, 학습·독서공간, 실내 놀이공간
		혁신도시 어린이 특화 생활SOC	놀이공간, 체험실, 어린이도서관, 소극장, 실내체육활동실
	광장·오픈스페이스 결합형	순천 신대도서관	미디어실, 자료실, 올림극장, 열린강당, 별별공작실, 커뮤니티룸
		서울도서관	책문화 공간 랩, 서울기록문화관, 하늘뜰, 대면낭독실, 일반자료실
해외	상업·생활편의 결합형	교도아트센터	도서관, 카페, 미팅룸, 워크숍룸, 제작실, 강당, 갤러리, 정보코너
		다케오 시립도서관	도서관, 스타벅스, 다케오 어린이도서관
		예링 도서관	예링 도서관, 쇼핑몰
		조르주蓬피두 센터	서점, 도서관, 전시장, 미술관
		카도카와 문화박물관	만화·라이트노벨 도서관, 애니메이션 박물관, 에디트 타운-북스트리트, 책극장, 카페, 레스토랑, 기념품숍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도서관	해밀턴 도서관, 존 스톤 의학 도서관, 레키 도서관, 어셔 도서관, 버클리 도서관, 구 도서관, 룬룸 전시공간
		템피니스 허브	템피니스 도서관, 축구장, 대형극장, 커뮤니티센터, 푸드센터, 슈퍼마켓, 어린이 놀이터, 보건센터, 건강연구소

위 표의 일부 사례는 도서관 기능이 둘 이상의 시설·서비스와 결합되어 있어 복수 유형에 중복 배치하였다. 이는 사례의 빈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에서 체육, 공연·전시, 돌봄·복지, 행정서비스, 상업·생활편의 등 다양한 기능이 어떻게 결합되고 연계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복합기능의 운영 특성과 이용자 경험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는 템피니스 허브와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들 수 있다. 템피니스 허브는 도서관, 체육, 공연, 커뮤니티, 생활편의, 보건 기능이 결합된 사례로, 이용자가 독서·체육·공연·커뮤니티 활동을 하나의 생활권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류성과 서비스 연결성이 높다. 반면 기능 범위가 넓어 동선과 소음 관리, 운영주체 간 협력, 공공성과 생활편의 기능 간 균형이 중요한 운영 과제로 나타난다.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은 독서, 놀이, 디지털 체험, 학습을 결합한 어린이 놀이·체험형 사례이다. 도서관 기능을 자료 열람에서 미디어 체험과 놀이·학습 활동으로 확장하여 어린이의 체류와 참여를 촉진하고, 어린이를 놀이와 체험을 통해 지식과 문화를 경험하는 주체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독서와 놀이 기능의 균형, 안전관리, 보호자 동선, 연령별 공간 구분은 주요 운영 조건으로 요구된다.

사례는 목적표집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도서관 기능이 공간 또는 서비스 구성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체육, 공연·전시, 기록·박물관, 돌봄·복

지, 행정서비스, 어린이 놀이·체험, 광장, 상업·생활편의 등 다양한 기능과 결합한 사례를 포괄하였다. 셋째, 동일 건물이나 부지 내 단순 병치를 넘어 장서·프로그램 연계, 공용공간을 통한 체류 유도, 지역자원 활용, 행정·복지·문화서비스 연계, 공동운영 등 서비스·프로그램·운영체계의 융합성이 확인되는 사례를 우선하였다. 넷째, 국내외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능과 운영 방식이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국내 사례에서는 생활권 공공서비스와 지역문화·돌봄·행정서비스의 결합을, 해외 사례에서는 체육·공연·상업·생활편의 기능과의 결합 및 체류형 공간 운영방식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기관 홈페이지, 사례자료, 공간 및 프로그램 소개자료, 정책·계획 자료 등을 통해 공간 구성, 결합 기능, 이용대상, 운영주체, 서비스 및 지역연계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례를 체육·웰니스, 공연·전시, 라키비움, 돌봄·복지, 행정·공공서비스, 어린이 놀이·체험, 광장·오픈스페이스, 상업·생활편의, 복합기능 혼합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유형은 단순한 사례 분류가 아니라, 각 공간이 이용자의 체류를 어떻게 촉진하고 사람·정보·문화·지역자원·공공서비스를 연결하며 도서관의 공공성을 유지·확장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 활용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질적 사례분석을 결합하였다. 먼저 도서관 역할 변화, 제3의 장소, 사회적 기반시설, 서비스스케이프, 공공도서관의

만남 장소 기능, 협력 거버넌스 등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후 수집된 사례를 대상으로 결합 기능, 공간 구성, 서비스·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경험, 운영주체, 공공성, 지역사회 연결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세 단계로 수행하였다. 첫째, 사례별 결합 시설, 주요 기능, 이용대상, 프로그램 구성, 공간적 특징 등 기초정보를 정리하였다. 둘째, 기능 결합 유형, 공간적 체류성, 서비스 연결성, 운영 및 공공성, 지역사회 연계성을 기준으로 사례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도서관과 타 기능의 결합 수준을 단순 병치, 서비스 연계, 운영 통합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단순 병치는 동일 건물이나 부지에 위치하지만 프로그램과 운영이 분리된 경우, 서비스 연계는 장서·전시·공연·교육·돌봄·체험 등이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이용 경험을 형성하는 경우, 운영 통합은 공동 운영주체, 통합 안내·예약·관리 체계, 협력 거버넌스 등이 구축된 경우를 의미한다. 셋째, 유형별 비교를 통해 단순한 시설 복합화와 실제 이용자의 체류 및 지역사회 연결을 강화하는 융합형 공간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를 양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각 공간이 ‘체류와 연결의 공공공간’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질적으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시설 규모나 프로그램 수보다 도서관과 결합 기능이 이용자 경험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물리적 인접에 그치는 공간적 병치와 장서·프로그램·공간·운영체계가 연계되어 체류와 참여를 확장하는 유기적 융합을 구분함으로써 단순 복합화와 도서관 중심의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을 구별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기준은 기능 결합 유형, 공간적 체류성, 서비스 연결성, 운영 및 공공성, 지역사회 연계성의 다섯 영역으로 설정하였다(〈표 2〉 참조).

3.3 연구질문

본 연구는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을 시설 결합의 관점이 아니라 체류와 연결의 공공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은 어떠한 기능 결합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도서관이 어떤 시설 및 서비스와 결합하고 있으며, 그 결합이 단순 병치인지, 서비스 연계인지, 이용자 경험의 통합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표 2〉 연구 분석틀

분석영역	주요 분석내용
기능 결합 유형	- 도서관과 결합된 시설·서비스의 성격, 결합 방식, 단순 병치와 서비스 연계의 구분
공간적 체류성	- 로비, 라운지, 열람공간, 전시공간, 어린이공간, 광장, 휴게공간 등 체류공간 구성과 동선·접근성
서비스 연결성	- 장서·정보서비스와 문화·교육·공연·전시·돌봄·체험 프로그램의 연계 방식
운영 및 공공성	- 도서관의 공공성 유지, 상업성 관리, 운영주체 간 협력, 기능 간 조정
지역사회 연계성	- 지역문화, 생활권 서비스, 주민참여, 지역자원과의 연결 방식

둘째,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은 이용자의 체류 경험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이 질문은 공간 구성, 동선, 공용부, 좌석, 프로그램, 분위기, 접근성 등이 이용자의 머무름과 반복 방문을 어떻게 촉진하는지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은 사람, 정보, 문화, 지역자원, 공공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하는가? 이 질문은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제공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내 관계와 활동을 매개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복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분절, 소음과 혼잡, 공공성 약화, 프로그램 중복, 협력기관 간 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운영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연구질문을 통해 본 연구는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의 의미를 단순한 시설 복합화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체류와 연결을 조직하는 공공공간 모델로 규명하고자 한다.

의 체류, 참여, 학습, 관계 형성, 지역사회 연결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도서관을 교육, 문화, 정보 접근, 포용,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관으로 규정한 IFLA & UNESCO(2022)의 공공도서관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본 연구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수집된 국내외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은 도서관 기능이 공간 구성 또는 서비스 구성의 중심축으로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도서관 기능이 명확하지 않거나 도서관이 핵심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제외하였다. 또한 하나의 사례가 둘 이상의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혼합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해당 기능 유형에 중복 배치하여 기능 결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을 체육·웰니스 결합형, 공연·전시 결합형, 라키비움 결합형, 돌봄·복지 결합형, 행정·공공서비스 결합형, 어린이 놀이·체험 결합형, 광장·오픈스페이스 결합형, 상업·생활편의 결합형으로 구분하였다.

4.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의 유형 분석

4.1 유형화의 전제와 분석 논리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은 도서관과 다른 시설이 물리적으로 결합한 형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도서관의 공공성, 접근성, 정보서비스 기능, 문화적 장소성이 다양한 생활문화 기능과 결합하여 이용자

4.2 체육·웰니스 결합형

체육·웰니스 결합형은 도서관이 체육시설, 건강증진 공간, 생활체육 프로그램, 휴식·회복 기능과 결합하는 유형이다. 신길 문화체육도서관, 원흥복합문화센터,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템피니스 허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사례는 독서와 학습, 운동, 휴식, 생활편의를 하나의 생활권 이용 흐름 안에서 연결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체류성을 강화한다.

이 유형은 도서관을 정적인 독서·학습 공간으로만 이해하는 관점을 넘어, 신체활동과 정신적 회복, 여가, 커뮤니티 활동을 함께 지원하는 생활권 공공공간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linenberg(2018)는 도서관과 같은 사회적 기반시설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공동체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육·웰니스 결합형 도서관은 독서, 운동, 휴식, 생활편의를 결합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적 체류와 사회적 접촉을 촉진하는 모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유형은 도서관의 정숙성과 체육시설의 활동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체육시설은 소음, 장비, 안전관리, 운영시간 측면에서 도서관 운영과 다른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Bitner(1992)의 서비스스케이프 이론에 따르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 환경은 이용자의 감정, 인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체육·웰니스 결합형에서는 정숙공간과 활동공간의 분리, 동선 조정, 소음 완충, 안전관리, 공용공간 관리가 핵심 운영 조건으로 나타난다.

4.3 공연·전시 결합형

공연·전시 결합형은 도서관이 공연장, 전시장, 강당, 갤러리, 미디어아트 공간, 생활문화센터 등과 결합하는 유형이다. 가람도서관, 부산도서관,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교토아트센터, 후쿠오카 시립도서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 유형은 도서관의 장서·정보서비스가 공연, 전시, 강연, 지역문화 콘텐츠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체류와 지식문화 경험을 확장한다.

Jochumsen et al.(2010)은 현대 공공도서관을 영감의 공간, 학습의 공간, 만남의 공간, 수행의 공간으로 설명하였다. 공연·전시 결합형은 이 가운데 영감의 공간과 수행의 공간을 강화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용자는 자료를 열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시와 공연을 통해 문화적 자극을 받고, 강연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공연·전시 기능이 도서관의 핵심 서비스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도서관은 복합시설 안의 부속 기능으로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공연·전시 결합형에서는 공연장이나 전시공간의 존재 자체보다 도서관 자료,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역기록, 시민학습 활동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장서 큐레이션, 전시 해설, 공연 연계 독서 프로그램, 지역문화 기록화 등이 이루어질 때 공연·전시 기능은 도서관의 공공문화 기능을 확장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4.4 라키비움 결합형

라키비움 결합형은 도서관의 정보서비스가 지역자료, 기록, 전시, 역사문화 콘텐츠와 결합하는 유형이다. 김근태기념도서관, 서울도서관,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넘어 지역의 역사, 기억, 기록,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해석·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다.

라키비움 결합형의 의미는 지역기억의 공공화에 있다.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이므로, 지역자료와 기록문화 콘텐츠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교육·전시·참여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기에 적합하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표현과 지식 접근을 지원해야 한다는 IFLA & UNESCO(2022)의 원칙과 연결된다.

다만 라키비움 기능이 단순 전시나 상징적 공간 구성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수집정책, 기록관리 기준, 전시해석 역량, 저작권·초상권 관리, 디지털 보존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유형은 도서관 운영 안에 기록관리와 전시해석 역량을 결합하는 전문적 운영 모델이 요구된다.

4.5 돌봄·복지 결합형

돌봄·복지 결합형은 도서관이 어린이 돌봄, 가족지원, 노인복지, 건강지원, 공동육아, 생활지원 기능 등과 결합하는 유형이다.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아산시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향남복합문화센터,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서창어울마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도서관의 문화서비스와 생활지원 기능을 생활권 안에서 결합함으로써 아동, 보호자, 고령자,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 유형은 도서관의 포용성을 직접적으로 확장한다. IFLA & UNESCO(2022)는 공공도서관이 연령, 성별, 국적, 언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돌봄·복지 결합형은 문화 접근권과 생활지원을 연결하는 공공서비스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돌봄·복지 기능은 도서관의 일반적 개방성과는 다른 운영 조건을 요구한다. 안전

관리,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위기 대응체계, 보호자 동선, 기관 간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nsell과 Gash(2008)가 협력 거버넌스에서 공동 목표, 역할 분담, 책임 구조, 갈등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돌봄·복지 결합형은 도서관 단독 운영보다 복지기관, 돌봄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4.6 행정·공공서비스 결합형

행정·공공서비스 결합형은 도서관이 행정복지센터, 민원서비스, 생활상담, 정책정보, 주민참여 공간 등과 결합하는 유형이다.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도서관을 독립적 문화시설이 아니라 생활권 공공서비스 접근의 거점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도서관은 신뢰 가능한 정보 제공과 시민의 정보역량 강화를 핵심 기능으로 한다. Habermas(1989)의 공론장 논의가 시민이 공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형성하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행정·공공서비스 결합형 도서관은 시민이 제도, 권리, 정책, 지역사회 문제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학습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행정서비스가 도서관 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하거나 민원처리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도서관의 문화·교육·정보서비스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공공서비스 결합형은 단순한 민원 편의성보다 시민학습, 정책정보 접근, 주민참여, 지역커뮤니티 활동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4.7 어린이 놀이·체험 결합형

어린이 놀이·체험 결합형은 도서관이 어린이 놀이시설, 디지털 체험공간, 창의활동실, 가족지원 기능, 어린이 전시·교육 프로그램과 결합하는 유형이다.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혁신도시 어린이 특화 생활SOC,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 유형은 어린이의 독서, 놀이, 디지털 체험, 학습 활동을 하나의 공간 경험으로 연결함으로써 어린이 이용자의 체류와 참여를 확대한다. 이 유형은 Jochumsen et al.(2012)의 네 공간 모델 중 학습의 공간, 영감의 공간, 수행의 공간이 결합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는 책을 읽는 동시에 만지고, 만들고, 움직이고, 표현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통합적으로 습득한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체험 결합형 도서관은 놀이와 체험을 독서 기능의 대체물이 아니라 독서 경험의 확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체험 기능이 과도하게 강조될 경우 도서관의 독서·정보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장서 큐레이션, 스토리텔링, 체험학습, 가족 독서 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하며, 안전관리, 보호자 동선, 연령별 공간 구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4.8 광장·오픈스페이스 결합형

광장·오픈스페이스 결합형은 도서관이 야외광장, 공원, 열린 로비, 커뮤니티 라운지, 하늘뜰, 마을마당 등과 결합하는 유형이다. 순천신대도서관과 서울도서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도서관을 건물 내부의 폐쇄적 시설이 아니라 도시와 지역의 공공공간 네트워크

속에 위치시킨다. 이 유형은 Oldenburg(1999)의 제3의 장소론과 Aabø et al.(2010)의 공공도서관 만남 장소 논의와 연결된다. 공공도서관은 형식적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 느슨한 공공장소이며, 광장·오픈스페이스와 결합할 때 우연한 접촉과 일상적 체류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공간이 행사 중심으로만 운영되거나 도서관 서비스와 분리될 경우, 도서관의 확장된 공공영역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따라서 야외 독서, 북마켓, 지역축제, 거리강연, 어린이 활동, 생활문화 공연 등이 장소와 프로그램, 지역자원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이 유형의 핵심은 열린 공간의 확보가 아니라 외부공간과 도서관 서비스의 연속성이다.

4.9 상업·생활편의 결합형

상업·생활편의 결합형은 도서관이 카페, 서점, 로컬숍, 푸드센터, 생활편의시설 등과 결합하는 유형이다. 다케오 시립도서관, 교토아트센터, 조르주 풍피두 센터, 카도카와 문학박물관, 템피니스 허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이용자의 체류 편의와 일상적 방문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업·생활편의 기능은 제3의 장소로서 도서관의 일상적 이용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Oldenburg, 1999). 그러나 동시에 도서관의 공공성과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상업 기능이 공용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하거나 소비를 전제로 한 체류를 강화할 경우, 도서관의 무료 접근성과 포용성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소비하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 비상업적 체류공간의 확

보, 상업시설과 독서문화·지역문화 프로그램의 연계, 공공서비스 정체성의 유지가 중요하다. 상업 기능은 수익 창출 자체보다 이용자 편의와 체류 경험을 보완하는 범위에서 설계될 때 도서관의 공공성을 침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5.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의 특성 분석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은 도서관에 다른 기능을 부가한 시설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공간, 서비스, 이용자 경험, 운영체계, 지역사회 관계의 차원에서 확장된 형태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체육, 공연·전시, 기록, 돌봄·복지, 행정서비스, 어린이 놀이·체험, 광장, 상업·생활편의 기능과 결합하면서 도서관의 기능을 다층적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의 특성을 공간적 체류성, 서비스 연결성, 이용자 경험 확장성, 운영 조정성, 공공성 및 지역사회 연계성, 데이터 기반 운영 가능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5.1 공간적 체류성: 머무를 수 있는 공공공간의 형성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의 첫 번째 특성은 이용자의 체류를 중심으로 공간이 재구성된다는 점이다. 전통적 도서관이 열람·대출·학습좌석·서가 중심이었다면, 복합문화공간은 로비, 라운지, 전시공간, 어린이 활동공간, 커뮤니티룸, 야

외광장, 휴게공간 등 다양한 체류공간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특정 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시설에서 머무르고 참여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공공장소로 확장된다.

이러한 변화는 물리적 환경이 이용자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Bitner(1992)의 서비스스케이프 이론과 연결된다. 조명, 가구, 동선, 소음, 공간 개방성, 안내체계, 좌석의 다양성은 이용자의 만족과 체류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Gehl(2010)이 도시공간에서 보행·체류·만남의 질을 강조한 것처럼, 복합문화공간에서도 시설 규모보다 이용자의 이동과 체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인간 중심 공간구성이 중요하다.

다만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정숙성과 활동성이 공존해야 하므로, 조용한 공간과 활동공간의 분리, 완충공간, 동선과 소음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연령과 신체조건의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만큼 유니버설 디자인과 접근성이 중요하다. Steinfeld와 Maisel(2012)의 관점에서 접근성은 물리적 이동뿐 아니라 쉬운 안내, 직관적 동선, 다감각적 정보 제공, 이용자 친화적 예약·대관 체계까지 포함한다.

5.2 서비스 연결성: 장서 중심에서 융합형 경험으로의 확장

두 번째 특성은 장서와 정보서비스가 다양한 생활문화 기능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복합문화공간의 서비스는 자료 제공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넘어 공연, 전시, 체험, 창작, 돌봄, 평생학습, 생활정보, 지역기록,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확장된다. 핵심은 프로그램 수의 증가가 아

나라 장서·정보자원과 다양한 활동이 하나의 경험 흐름으로 연결되는가에 있다.

Jochumsen et al.(2012)의 네 공간 모델은 현대 공공도서관을 영감, 학습, 만남, 수행의 공간으로 설명한다.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은 이러한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며 이용자가 읽고, 배우고, 만들고, 만나고, 표현하는 경험을 형성한다. 공연·전시 결합형에서는 장서 큐레이션과 전시·강연이, 라키비움 결합형에서는 지역자료·기록·전시가, 어린이 놀이·체험형에서는 독서·놀이·디지털 체험이, 돌봄·복지형에서는 문화서비스와 생활지원 기능이 연계된다. 따라서 복합문화공간의 핵심은 다기능성보다 장서,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지역자원과 이용자 활동 간 연결성에 있다.

5.3 이용자 경험 확장성: 단순 이용에서 관계적 이용으로

세 번째 특성은 이용자 경험이 목적 지향적 이용에서 체류, 참여, 관계 형성으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자료 탐색·열람·대출 중심 이용은 복합문화공간에서 독서, 관람, 체험, 놀이, 운동, 휴식, 상담, 지역행사 참여 등으로 다층화된다.

이는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이고 관계를 형성하는 일상적 장소를 설명한 Oldenburg(1999)의 제3의 장소론과 연결된다. 공공도서관은 소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다양한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의 장소적 특성을 지닌다. Aabø et al.(2010) 역시 공공도서관이 광장, 만남의 장소, 공론장, 공동활동의 장소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서

관의 사회적 가치는 방문자 수나 대출권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용자 경험의 확장은 장소애착과도 관련된다. Tuan(1977)은 인간의 경험과 의미 부여를 통해 공간이 장소로 전환된다고 보았으며, Relph(1976)는 장소성을 정체성, 경험, 소속감과 연결하였다. 반복 방문, 프로그램 참여, 커뮤니티 활동과 지역기억 공유는 도서관을 의미 있는 장소로 형성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공개 사례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만족도, 재방문 의도, 장소애착, 체류시간을 직접 측정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설문, 심층면담, 공간 이용행태 분석 등을 통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5.4 운영 조정성: 복합기능을 지속시키는 운영 체계

네 번째 특성은 복수 기능과 운영주체를 조정하는 운영체계의 중요성이다. 도서관이 체육, 공연, 돌봄, 행정, 상업 기능과 결합할수록 운영 시간, 예약체계, 공간 배분, 안전관리, 프로그램 기획, 인력 배치와 민원 대응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복합문화공간의 지속가능성은 시설 규모보다 운영 조정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

Ansell과 Gash(2008)는 협력 거버넌스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작용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고, Provan과 Kenis(2008)는 네트워크의 효과성이 구조, 조정 방식, 신뢰와 책임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에서도 운영주체별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과 갈등조정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체육·웰니스형에서는 소음·동선·안전과

운영시간, 어린이 놀이·체험형에서는 안전과 보호자 동선, 돌봄·복지형에서는 전문인력과 기관 간 역할 분담, 상업·생활편의형에서는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이 중요하다. 운영체계가 분절될 경우 물리적 복합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경험은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

5.5 공공성 및 지역사회 연계성: 생활권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기능

다섯 번째 특성은 공공성과 지역사회 연계성이 결합될 때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이 생활권 기반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문화, 교육, 돌봄, 복지, 행정, 지역기록, 생활편의 기능을 연결한다. IFLA & UNESCO (2022)가 공공도서관을 정보 접근, 교육, 문화, 포용을 위한 지역사회의 핵심 기관으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공공성을 보여준다.

Klinenberg(2018)는 도서관, 공원,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사회적 기반시설이 시민 간 접촉을 촉진하고 사회적 고립과 공동체 약화를 완화한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은 독서뿐 아니라 강좌, 돌봄, 행정서비스, 지역행사, 이웃과의 느슨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장소가 된다.

그러나 상업 기능이나 유료 프로그램의 확대는 무료 접근성과 비상업적 체류공간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정체성, 무료 이용 공간,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 지역자원 연계와 주민참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결국 복합화의 기준은 기능의 확대가 아니라 공공성의 확장에 있어야 한다.

5.6 디지털 연계와 데이터 기반 운영 가능성

여섯 번째 특성은 디지털 연계와 데이터 기반 운영의 필요성이다. 복합문화공간은 다양한 공간, 프로그램과 운영주체가 결합되므로 안내, 예약, 대관, 프로그램 신청, 공간 이용현황, 만족도와 커뮤니티 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은 홍보수단을 넘어 이용 경험과 운영을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

노영희와 장로사(2020)는 공공도서관 만족도가 이용 의도와 추천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노영희와 김동석(2022)은 감성분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였으며, 강지혜 외(2026)는 텍스트마이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을 통해 공공도서관에 관한 온라인 담론을 분석하였다. 이는 이용자 인식과 데이터 분석이 도서관 정책과 운영 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복합문화공간의 성과 역시 방문자 수, 대출권 수, 프로그램 횟수와 같은 산출지표뿐 아니라 체류, 참여, 만족도, 재방문 의도, 관계 형성, 지역사회 참여 등 이용자 경험과 사회적 영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2014, ISO 16439)도 도서관 영향평가에서 개인·기관·사회에 미치는 변화를 포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플랫폼 운영자료나 이용자 로그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프로그램 참여, 공간 이용, 만족도, 온라인 담론 등의 자료를 결합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을 단순한 시설 복합화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체류와 연결을 촉진하는 공공공간 모델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도서관은 체육·웰니스, 공연·전시, 라키비움, 돌봄·복지, 행정·공공서비스, 어린이 놀이·체험, 광장·오픈스페이스, 상업·생활편의 등 다양한 기능과 결합하며 생활권 기반 공공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는 공공도서관을 교육·문화·정보 접근과 포용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보는 IFLA & UNESCO(2022)의 관점과도 부합한다.

핵심은 복합문화공간의 성과가 시설 규모나 결합 기능의 수보다 도서관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간·서비스·프로그램·지역자원·운영체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계가 이루어질 때 도서관은 머무름, 만남, 참여를 촉진하는 공공장소로 기능하며, 이는 Oldenburg(1999)와 Aabø et al.(2010)의 논의와도 연결된다. 반면 상업화·유흥화와 이벤트 중심 운영은 무료 접근성, 정보 접근권과 포용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

므로, 소비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과 무료 정보 서비스, 취약계층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동선, 좌석, 조명, 소음, 안내체계 등 물리적 환경 역시 체류 경험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이다(Bitner, 1992).

운영 측면에서는 명확한 운영주체와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공동 기획, 프로그램 조정, 공간운영, 안전관리와 성과관리를 연계해야 한다(Ansell & Gash, 2008; Provan & Kenis, 2008). 향후 정책도 시설 확충에서 운영 고도화와 이용자 경험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평가에 방문자 수와 대출권수뿐 아니라 체류시간, 만족도, 재방문,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연결과 장소애착 등 영향지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4, ISO 16439).

본 연구는 공개된 국내외 사례와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내부 운영자료, 예산·인력 구조, 실제 이용행태와 만족도를 직접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용자 설문, 심층면담, 공간 이용행태와 운영성과 자료를 결합하여 도서관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의 효과와 융합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은영 (2020). 부산시청사 내 공공도서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국내 공공청사 내 도서관 현황과 부산지역 시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411-437.
<https://doi.org/10.16981/kliss.51.3.202009.411>
- 강지혜, 장인호, 노영희, 노지윤, 신영지 (2026). 유성구 공공도서관의 온라인 담론과 네트워크 구조 분석: 근거 기반 정책설계를 위한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 및 토픽모델링 연구. International

-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16(2), 45-78.
<https://doi.org/10.5865/IJKCT.2026.16.2.045>
- 곽승진, 노영희, 신재민 (2017).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공간 구성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7-2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007>
- 권지은, 권기윤, 박현주 (2020).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향.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5(2), 161-172. <https://doi.org/10.35216/kisd.2020.15.2.161>
- 노영희, 김동석 (2022). 감성분석을 활용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인식 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12(4), 41-65.
<https://doi.org/10.5865/IJKCT.2022.12.4.041>
- 노영희, 김윤정 (2019).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23-50. <https://doi.org/10.4275/KSLIS.2019.53.4.023>
- 노영희, 장로사 (2020). 공공도서관 만족도가 이용 의도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10(3), 69-85.
<https://doi.org/10.5865/IJKCT.2020.10.3.069>
- 노지윤, 노영희 (2019).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이용요인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511-537. <https://doi.org/10.16981/kliss.50.4.201912.511>
- 노지강, 이선정 (2025).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0(3), 225-238.
<https://doi.org/10.35216/kisd.2025.20.3.225>
- 박주현, 장우권, 신우진, 김주진, 박현지 (2024). 공공도서관의 복합문화도서관 이전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완도군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55-81.
<https://doi.org/10.16981/kliss.55.2.202406.55>
- 박진숙, 이원희 (2025). 대학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전환을 위한 공간구성 연구: 대림대학교 수암도서관 Creative Learning Commons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0(6), 33-48.
<https://doi.org/10.35216/kisd.2025.20.6.33>
- 손다희, 이남규 (2025). 공공도서관 열람공간 구성 변화와 이용자 시지각 특성에 관한 연구: 2015년 이후 한국·일본 공공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0(5), 345-356.
<https://doi.org/10.35216/kisd.2025.20.5.345>
- 신영지, 노영희 (2020). 공공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의 프로그램 구성체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1), 89-114. <https://doi.org/10.4275/KSLIS.2020.54.1.089>
- Aabø, S., Audunson, R., & Vårheim, A. (2010). How do public libraries function as meeting plac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2(1), 16-26.
<https://doi.org/10.1016/j.lisr.2009.07.008>

- Ansell, C. & Gash, A.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
<https://doi.org/10.1093/jopart/mum032>
- Audunson, R. (2005). The public library as a meeting-place in a multicultural and digital context: The necessity of low-intensive meeting-places. *Journal of Documentation*, 61(3), 429-441.
<https://doi.org/10.1108/00220410510598562>
- Bitner, M. J. (1992). Servicescapes: The impact of physical surroundings on customers and employees. *Journal of Marketing*, 56(2), 57-71. <https://doi.org/10.1177/002224299205600205>
- Gehl, J. (2010). *Cities for People*. Washington, DC: Island Press.
- Habermas, J.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ranslated by T. Burger & F. Lawrence. Cambridge, MA: MIT Press.
- IFLA & UNESCO (2022).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202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Available:
<https://www.ifla.org/public-library-manifest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Methods and Procedures for Assessing the Impact of Libraries*. ISO 16439:2014.
<https://www.iso.org/standard/56756.html>
- Jochumsen, H., Hvenegaard Rasmussen, C., & Skot-Hansen, D. (2012). The four spaces: a new model for the public library. *New Library World*, 113(11/12), 586-597.
<https://doi.org/10.1108/03074801211282948>
- Klinenberg, E. (2018). *Palaces for the People: How Social Infrastructure Can Help Fight Inequality, Polarization, and the Decline of Civic Life* New York, NY: Crown.
- Oldenburg, R. (1999). *The Great Good Place: Cafés, Coffee Shops, Bookstores, Bars, Hair Salons, and Other Hangouts at the Heart of a Community* New York, NY: Marlowe & Company.
- Provan, K. G. & Kenis, P. (2008). Modes of network governance: structure, management, and effectivenes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2), 229-252.
<https://doi.org/10.1093/jopart/mum015>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England: Pion.
- Steinfeld, E. & Maisel, J. (2012). *Universal Design: Creating Inclusive Environment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Tuan, Y.-F.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Do, Ji-Kang & Lee, Sun-Jung (2025).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ies as complex cultural spaces: focusing on Lefebvre's theory of the production of spac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Spatial Design*, 20(3), 225-238.
<https://doi.org/10.35216/kisd.2025.20.3.225>
- Kang, Eun-Young (2020).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plan for a public library in Busan City Hall: focusing on the current status of libraries in domestic public office buildings and a survey of Busan citizens' perceptio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411-437. <https://doi.org/10.16981/kliiss.51.3.202009.411>
- Kang, Jihei, Chang, Inho, Noh, Younghee, Ro, Ji-Yoon, & Shin, Youngji (2026). Online discourse and network structures of Yuseong-gu public libraries: big-data text mining and topic modeling for evidence-based policy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16(2), 45-77. <https://doi.org/10.5865/IJKCT.2026.16.2.045>
- Kwak, Seung-Jin, Noh, Younghee, & Shin, Jae-Min (2017).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libraries as complex cultural institu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7-2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007>
- Kwon, Ji-Eun, Kwon, Ki-Yoon, & Park, Hyun-Ju (2020).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as complex cultural spaces for community revita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5(2), 161-172.
<https://doi.org/10.35216/kisd.2020.15.2.161>
- Noh, Younghee & Chang, Rosa (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public library satisfaction on use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10(3), 69-85. <https://doi.org/10.5865/IJKCT.2020.10.3.069>
- Noh, Younghee & Kim, Dong-Seok (2022). A study on the social perception of public libraries using sentimen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12(4), 41-65. <https://doi.org/10.5865/IJKCT.2022.12.4.041>
- Noh, Younghee & Kim, Yoon-Jung (2019). A study on users' perceptions of library complex cultural spa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4), 23-50. <https://doi.org/10.4275/KSLIS.2019.53.4.023>
- Park, Jin-Sook & Lee, Won-Hee (2025). A study on spatial composition for the transform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into complex cultural space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Creative

- Learning Commons at Suam Library, Daelim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Spatial Design*, 20(6), 33-48. <https://doi.org/10.35216/kisd.2025.20.6.33>
- Park, Joo-Hyun, Chang, Woo-Kwon, Shin, Woo-Jin, Kim, Joo-Jin, & Park, Hyun-Ji (2024). A feasibility study on the relocation and construction of a public library as a complex cultural library: focusing on Wando County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2), 55-81. <https://doi.org/10.16981/kliss.55.2.202406.55>
- Ro, Ji-Yoon & Noh, Younghee (2019). A study on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library complex cultural spa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511-537. <https://doi.org/10.16981/kliss.50.4.201912.511>
- Shin, Young-Ji & Noh, Younghee (2020). A study on the program composition system and activation plan of complex cultural spa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1), 89-114. <https://doi.org/10.4275/KSLIS.2020.54.1.089>
- Son, Da-Hee & Lee, Nam-Kyu (2025). A study on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public library reading spaces and users' visual perception characteristics: focusing on cases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and Japan since 2015.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Spatial Design*, 20(5), 345-356. <https://doi.org/10.35216/kisd.2025.20.5.345>